

Vol.37 2010. 5

K I E R

Friday energy letter

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

Friday Energy Letter

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

2010. 5. 7

* 출처 : '독일의 그린에너지 정책 및 산업' - 주독일대사관,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, 주함부르크총영사관, 주본분관 공동 작성 (2009.8)

□ 독일의 에너지 정책

- 독일은 전체 1차 에너지의 약 75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'90년 이래 수입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('90년 수입의존도 : 55%)
 - 원유의 96%, 천연가스의 84%, 원자력 원료의 100%, 석탄의 66%를 수입에 의존
 - 독일의 1차에너지 소비 비중(2008년) : 원유(34.6%), 천연가스(22.8%), 석탄(14%), 갈탄(11.5%), 원자력(11.5%), 재생에너지(7.3%)
-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①에너지 이용의 경제성, ②에너지공급의 안정성, ③에너지의 환경친화적 이용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

□ 통합 에너지-기후변화 패키지(Integrated energy and climate Program)

- 독일 정부는 에너지공급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'07. 6월 "통합 에너지-기후변화 패키지"(법령 제·개정 등 29개 개별 조치 포괄)를 수립함
 - 독일 정부는 에너지 기업·경제계, 노조 및 기타 관련인사 등이 참여한 국가에너지 정상회담(메르켈 총리 주재)을 3차례(06.4월, 06.10월, 07.7월) 개최하여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상기 안 마련

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독일 정부의 목표

-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% 감축
-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1990년 대비 20% 증진
- 2020년까지 전력생산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%로 확대(재생에너지법: EEG)
-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비율을 14%로 확대(재생에너지 난방법: EWG)

- '07.12월 연방각의에서 "제1차 에너지-기후변화 패키지"가 의결되어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,(동 패키지에 포함된 4개 법률 제·개정은 '08.6.6 연방하원 통과), '08.6월

“제2차 에너지·기후변화 패키지”가 의결됨

에너지·기후변화 패키지에 포함된 주요 법안·정책

- 재생에너지법 개정 : 전력생산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%로 확대하는 목표 설정 및 재생에너지 종류별 지원액 합리적 조정
- 재생에너지난방법 제정 :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비율 목표를 14%로 제시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난방 촉진을 위해 보조금 등 혜택 부여
- 열·전기 병합발전법 개정 : 열·전기 병합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비율을 25%로 확대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 등 혜택 부여
- 기타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, 전력 검침 자율화, 화물차 통행료 인상 등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반 정책 포괄

□ 재생가능에너지 개발·이용 현황 및 정부의 지원정책

- 2008년 독일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9.7%
(1차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7.3%)
- 2008년 한해동안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루어진 이산화탄소 배출감축량은 총 1.12억톤 규모로 전년에 이어 2008년에도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기여하였음
- 2008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약 287억 유로 규모이며,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일자리수는 2007년 25만개에서 2008년 28만개로 증가함
 - 바이오에너지(9만 5천개), 풍력에너지(8만 5천개), 태양에너지(7만 4천개) 등의 순임

주요 지표	2007년(%)	2008년(%)	변동율(%)
최종에너지 소비량중 재생에너지 비율	9.8	9.7	△1
총 전력소비량중 재생에너지 비율	14.0	14.8	5.7
총 난방소비량중 재생에너지 비율	7.5	7.7	2.7
총 연료소비량중 재생에너지 비율	7.3	6.1	△16.4
재생에너지를 통해 절감된 이산화탄소량	약 1.17억 톤	약 1.12억 톤	△4.3
재생에너지 산업 매출액	약 255억 유로	약 287억 유로	12.5
재생에너지 산업 일자리수	약 249,000개	약 278,000개	12

□ 에너지효율(energy efficiency)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

- 독일 정부는 에너지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공급의 안정

성을 도모하는 한편, 에너지 수요(사용) 측면에서는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
-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20% 증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, 법규정 및 각종 제도적 지원정책을 통해 에너지 효율 증진을 도모
- 특히 독일은 건축물 열(에너지) 효율 수준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 - 기존 건물을 보다 열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축토록 보조금, 저리 대출 등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
 - 09.1월부터 신축건물을 현행보다 (난방)에너지를 30%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축하도록 의무화

□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조기 달성

- 독일 연방환경부(BMU, Bundesministerium Fur Umwelt)는 08.11.28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이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다고 발표함
- 독일의 200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년 대비 2.3%가 감소한 9억 5천 7백만톤으로 기준년도 대비 22.4% 감소한 수치임
 - 독일은 교토의정서에 의거 2012년까지 기준년도 대비 21%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
-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전력생산 부문만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
